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 195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 1993

미주 선교찬양대 카네기홀 성가합창제 출연

'93 대 뉴욕전도대회(할렐루야 대회)에도 참가 찬양

당회장 신성종 목사 '93 뉴욕전도대회 주강사로 집회 인도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찬양대가 해외연주 활동을 하게 되는 미주선교찬양대는 27일 저녁(현지시간)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성가합창제에 출연하여 찬양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해 이미 연초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미주선교찬양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주간 토요일(26일) 오후 3시에 김포공항을 떠났다.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성가합창제는 미국 뉴욕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합창제로 미국내의 한인교회가 참가하고 국내에서

한 교회가 초대되어 참가하게 된다. 이미 이 대회에는 영락교회, 명성교회, 금란교회가 다녀왔다.

미주선교찬양대는 이 성가합창제 외에 7월 1일부터 4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93 대 뉴욕전도대회(일명, 할렐루야 대회, 주강사 신성종목사)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고, 7월 4일에는 무디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고, 7월 7일(수) 저녁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수정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

한편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퀸스

칼리지 대강당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뉴욕전도대회(할렐루야 대회)'의 주강사로 초청을 받고 매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6월 29일 출국하여 7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뉴욕전도대회는 매년 7월 초에 뉴욕지구내의 한인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주최하는 미국 뉴욕지구의 큰 집회로 지난 198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후 매년 꾸준히 대회를 가져 미국이나 국내에서 잘 알려진 전도대회인데 올해는 13회째이다.

이번 미주선교찬양대는 카네기홀 성가합창제 출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간

원로목사 · 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6월 28일 전국 사모 집회 설교 (대전 중앙교회 수양관)
- 6월 29일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강의 (중앙성결교회)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6월 29일 '93 뉴욕 할렐루야 전도집회 인도차 출국(7월 1~4일, 주강사: 신성종 목사)

의 집중훈련으로 찬양대원의 수준향상과 영성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주간에 걸친 해외체류 일정 동안에 온 교우들은 이번 미주선교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이 선교적 사명을 자각하고 모든 일정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큰 은혜를 끼치는 가운데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찬양대원과 임원 등 모두 213명이 떠나는 미주선교찬양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신성종 목사
- 부단장 / 노광현 장로
- 총무위원장 / 윤명식 장로
- 진행, 관리위원장 / 이종석 장로
- 공역위원장 / 이훈 장로
- 서기 / 이인영 집사
- 회계 / 심정례 집사, 표성배 집사
- 총무부장 / 안동현 집사
- 진행부장 / 전홍열 집사
- 관리부장 / 이계인 집사
- 지휘 / 이관섭 장로, 김영준 집사
- 반주 / 백금옥 집사, 김신영 선생



청년부 통합 헌신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

교회는 7월 첫주부터 시행하게 될 청년 1, 2, 3부의 통합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청년부 통합헌신예배로 드린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통합되는 청년부 회원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누가복음 17장 11

~19절의 본문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며, 청년부 교사들을 임명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감사위원회 상반기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최대원 장로)에서는 1993년도 상반기 감사를 7월4일부터 25일까지 매주일 1부 예배 및 수요 1부 예배후 선교관 404호 감사위원회실에서 실시한다.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

성찬식 거행

교회는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 93년도 세번째 성찬식을 거행한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 주간 금요일(6월 25일) 저녁에는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의 마음으로 참여할 때 큰 은혜가 됨을 인식하고 이런 마음으로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여야 되겠다.



사랑의 헌혈

지난 주일 교회는 남부적십자 혈액원의 요청에 응해 전 교인이 헌혈하는 일이 있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앞 마당에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했는데 총 383명이 참여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번째 수난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전에 도 수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했듯이 이전에는 암시적,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고 본문에서처럼 공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수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첫번째 수난예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 번 내지 네 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에 걸친 수난예고가 나와있습니다.

1.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께서서는 공개적으로 수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노고 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많은 고난을 받겠대, 둘째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셋째는 제 삼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제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진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것은 그들이 흔히 생각했던 정치적인 세속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치 아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편견이 있고 각자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안경을 쓴대로 듣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이해(Free Understanding)라 하는데 이 전이해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삼 년 동안 저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이면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도 시몬 베드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못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방관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짜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의리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 "바요나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시고 복이있다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십자가 지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몬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2. 주님을 따르는 자의 성경적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아주 중요한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의 오해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해를 했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에게 봉사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보상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명예 보상을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합니

충현강단



예수님의 첫번째 수난 예고

(마 16:21-28)



신성종

<목사·당회장>

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주시는 것은 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완전한보상, 완전한 명예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앞에 가지말고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는 24절에 크게 세 가지로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에 나를 자꾸 긍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머리에 씌워져 있는왕관, 교만해 하는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한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누구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신의 십자가가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려고 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남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우리 예수님만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저야될 십자가는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셋째로 '나를 좇을 것이니라'입니다. 예수님을 좇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 예수님

이 앞서 가시면서 내어놓으신 발자욱을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른 발자욱 남긴 곳은 오른 발자욱, 왼발 자욱 남긴 곳에는 왼발 자욱, 한 발 두 발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3.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본문 25절과 26절에는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잃는 자는 찾고 찾는 자는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추구할 때에다시말하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잃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각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미련없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줍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는 버려야 될 시시하고 가치없는 세상적인 장남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귀한 것을얻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바로 이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여기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참 의리있는 사람처럼 아주 큰소리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째로 고난 동참과상급약속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동참하는 자는 예외 없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NO CROSS, NOCROWN"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주님을 위해서 참됨을 당하고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우리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반성해 보면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해지는 비결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내적인 것이 따라와야 한다. 구태어 공식을 말한다면 '행복 = 재물 /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분자와 분모의 관계가 중요하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욕망을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재물의 증가만으로는 절대로 행복의 수치가 늘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비결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모든 욕망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느 선에서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욕망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남을 돕는 생활을 해야 한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이 따르게 되어 있고 검소한 생활 속에서 자제가 가능한 것이다.

글 / 신성종 목사

칼럼

교회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강 은 원

(장로,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짧은 역사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갱신과 성숙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 몇달 남지 않은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충현교회의 부족한 시무 장로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할 점들을 생각해 보고 싶다.

먼저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충현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충현교회의 갱신과 성숙을 위하고 또한 40년간의 전통가치들의 보존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속하고 협력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행여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 교회의 평화적 성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봉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 그럴때 우리는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각자 자신들의 교만을 반성하고 겸손히 서로를 믿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장벽(유대인과 이방인, 무식과 유식, 부자와 가난한 자)을 허무셨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가 보이지 않게 편을 가르는 일이라든가, 교회의 공식 조직 외의 별도의 모임이 있다든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눈치만 살피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저 '충현의 성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바탕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화평과 일치를 사랑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범적인 성도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나갈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장벽(유대인과 이방인, 무식과 유식, 부자와 가난한 자)을 허무셨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가 보이지 않게 편을 가르는 일이라든가, 교회의 공식 조직 외의 별도의 모임이 있다든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이다.

구원

김 은 섭

(집사, 제15교구)

세상은 가면(假面)
인간도 가면(假面)
죽음 수렁에 깊이 빠져
행동마다 허물의 옷
걸음걸음 죄만 딛고
고집하며 살아온 내 인생
못 자국난 손 허물벗겨 주옵소서.

방황 속에
세상악취 풍기고
당신과 연합 할수록
더 먼 요단강
내 발걸음 돌려 예수님 바라보며
머리숙인 참회 구원받은 이 몸
이 세상 기도로써 살게 하소서.

오늘의 내 기도
빈 가슴 채울 때까지
두 마음 변해 소금과 빛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빛난 면류관 쓰고
우리만의 우리 영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리



모국교회 방문 교포학생들 지난 6월 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숙식을 하며 모국교회를 배우기 위해 온 미국 앵커리지열린문장로교회 한글성경학교 학생들(22명, 교사포함)은 지난 주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해당 교회학교에 참여했다. 주간 중에는 교회의 안내를 받아 순교자 기념관, 임진각, 탕굴건축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회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함께 기념촬영(상)을 하고 사무국 총무과장 김차철 집사의 안내(하)를 받아 교회의 이곳 저곳을 구경하기도 했다.

토막소식

- ◆ 영아부는 지난 주일부터 3부예배로 드린다. 시간은 오전 9시, 10시, 11시인데 가능하면 2부 예배시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있다.
- ◆ 유치부에서는 7월 26 ~ 28일에 여름성경학교를 가진다. 다음주에는 2학기 성경공부 복습이 있다.
- ◆ 유치원에서는 6월 24 - 25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여름 캠프를 가졌다. 어린이들의 자립심과 사회성, 협동심을 기르며 자연학습의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초등6부는 오늘 안드레 전도운동 2차 초청전도 잔치가 있다. '나의 결심서'를 작성

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된다.

- ◆ 중등1부 여름 수련회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7월 19일~21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 ◆ 중등2부는 7월21~24일 충현기도원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여름수양회로 모인다. 강사는 이종대 목사
- ◆ 중등3부는 오늘(6/27) 상반기 성경퀴즈대회를 교육관 507호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범위로 열며 설교노트 기록상 시상식도 있다.
- ◆ 대학부는 24일과 25일에 2계명, 5계명, 8계명을 공부하며 기도회를 가졌다. 6월 28일 ~ 7월 2일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제목으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 ◆ 청년부는 7월17일 하기 수련회로 모이며 이를 위한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 수요일 II에

배 후에 갖고 있다.

- ◆ 장년3부의 21일과 22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모인 하기 수련회는 예상보다 많은 180명이 참석하여 장소를 확장하면서까지 말씀을 듣는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6/27) 십계명 암송대회가 있다.
-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총동원 주일로 새가정부의 전회원 가정, 장기 결석가정과 무신론 가정을 집중적으로 동원한다.
- ◆ 충현선교연구원에서는 선교에 헌신 할 선교연구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다. 등록은 교육관 103호 교육국으로 하면된다.

직원모집

본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비직 : 남O명
40-50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성도
- 미화직 : 여O명
40-50세의 여성도
- 사무직 : 남O명, 여O명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로서 운전면허 소지자, 여직원은 PC 경험자
- 자격 및 제출서류: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써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 402)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

1차 : 93. 8.2(월) ~ 8.6(금), 2차 : 93. 8.9(월) ~ 8.13(금)

전도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는 93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금년도 하기 전도대는 총 18개 대로 농어촌 전도대 15개대와 춘천 소년원 전도대, 대학부 NMC 전도대 2개대 등으로 교회 부목사들이 인솔 교역자

가 되어 2차에 나누어 실시된다. 1차는 8월 2~6일, 2차는 8월 9일~13일까지이다. 금년 하기 농어촌 전도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월27일에서 7월4일사이에 사무국이 나 인솔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하기농어촌 전도대 파송 인솔교역자

파송교회	주 소	교역자	파송기간	인솔교역자	대원
금매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이재식 전도사	2차	김광국 목사	10명
천곡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2리	권현도 전도사	2차	김희수 목사	10명
대신	경기 여주 가남 대신 3리	홍익표 목사	1차	장경철 목사	10명
양동섬실	경기 양평 양동 석곡리	유원열 목사	1차	조운재 목사	10명
전동	충남 연기 전동 노장3리	한억수 목사	1차	박정규 목사	10명
우정	경기 화성 우정 화산5리	이태근 목사	1차	장봉생 목사	10명
좌석	경북 영풍 단산 좌석 147	황법남 목사	2차	이인우 목사	10명
안계동부	경북 의성 안계 토매2리	신종국 목사	1차	홍창민 목사	10명
이천	경북 달성 다사 이천동 541	박 형 목사	2차	김수상 목사	10명
반석	강원 원주군 반북동	이홍재 전도사	1차	한용관 목사	10명
서머나	충남 논산 양촌면 신기2리	김순영 전도사	2차	김용기 목사	10명
봉정	강원 정선 북면 봉정리	이중하 목사	2차	이종대 목사	10명
상금	전북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296	백종길 목사	2차	이홍성 목사	10명
송계리	강원 정선 임계 송계1리	배태환 전도사	2차	정광옥 목사	10명
모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서리	문정남 전도사	2차	성봉환 목사	10명
	춘천소년원	박양덕 전도사	2차	조동원 목사	10명
NMC전도대A	별도 계획			이병각 목사	A-15
NMC전도대B	별도 계획			이병각 목사	B-15

전도대파송기간 1차 : 93. 8.2(월) ~ 8.6(금), 2차 : 93. 8.9(월) ~ 8.13(금)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6월28일(월) 전국 사모 집회 설교 (대전중앙교회 수양관), 6월29일(화) 한국어린이교육 선교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강의(중앙성결교회)
· 신성종 목사님 : 6월29일(화) '93뉴욕 할렐루야 전도 집회 인도자 출국 (7월1일~4일, 주강사 : 신성종 목사)
2.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미주 선교찬양대원들이 건강하고 성령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여행이 되게 하소서.
4.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부와 새가족위원회에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5. 맥추감사절(7월4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의 알고 모르는 가운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곳에 온지 두달째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래동안 선교사역(특히 선원 선교)을 해왔고 이곳 N.Z에서 병행하기엔 힘든 공부를 계속하면서 (BIBLE COLLEGE OF N.Z) 목회생활을 감당하시는 기호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가족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33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체로서의 삶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터는 저희 집 예배처소에서 전교인이 매주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보고 듣고저 많은 곳을 방문도 해보았습니다만 이곳에서도 타선교지 못지 않은 어려움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산업시설, 침단 분야 미개발, 해가죽화으로 인한 고령화 및 인간관계 파괴, 동성연애, 높은 해외 수입의존도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등은 이곳의 젊은이들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삶까지도 침체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해야할 구제와 선교의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N.Z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위한 선교로써 유학생 선교·기독서적 대여·문서통신선교·내외 향선원 선교 등으로 구분을 하여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1. 유학생 전도

영어연수 및 진학을 위해 이곳에 온 학생들이 국민학생으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관계로 쉽게 접근해서 도울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2. 기독교적 대여

거리상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한국말 신앙서적을 전혀 구할 수 없으

므로 이민 온 한국인 신자에게 절적인 성숙함을 주기 어렵고 불신자를 전도할 매체가 부족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한국인 2세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신앙서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가져온 책을 중심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할 때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와 양이기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실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3. 문서통신 선교

N.Z전 지역에는 제법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인교회는 4지역(Auckland, Christchurch, Wellington, Rotorua)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의 신앙을 문서통신을 통하여 점검해주는 일 또한 이곳 교회가 맡아서 사역하여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4. 내외향 선원선교

이는 뉴질랜드를 찾는 외향선박과 내향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로써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선원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경공부 교재와 신앙서적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이는 정기적 방문시 뿐아니라 통신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제로 신앙성숙을 꾀하고 선내에서의 정기예배를 갖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협력하여 선교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유학생 선교·선원선교·문서선교에 비중을 두고자 하오니 한글, 영문 전도지 각급 성경공부 교재, 충현만나, 주간총헌 등(정기 간행인쇄물 포함)을 우송해 주시면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기도와 사랑을 바라며 충현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뉴우질랜드에서
김형선·한영자 올림